차 례

제 1 과
회령고향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체6(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동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회령은 우리 나라의 두만강가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봄이면 백살구꽃 활짝 피고 가을이면 산열매 무르익는 회령땅은 예로부터 살기 좋아 이름난 곳입니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즐겁게 뛰놀며 어린시절을 보낼수 없으시였습니다.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온 가정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기때문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분들은 모두가 나라를 찾는 일에 한몸바치신 애국자들이고 혁명투사들이시였습니다.

아버님이신 김춘산선생님은 일찌기 두만강을 넘나들며 나라 찾는 운동을 벌리신 애국자이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 찾는 운동을 벌리시다가 일제놈들에게 여러번 체포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번 다진 마음을 조금도 굽히지 않으시고 놈들과 맞서싸우시였습니다.

어머님이신 오씨녀사는 아버님의 애국투쟁을 적극 도우시면서 자제분들을 참되게 키우신 훌륭한분이시였습니다.

오라버님이신 김기준선생님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혁명가이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로동자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벌리시다가 그만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비밀을 지켜 끝까지 싸우다 희생되시였습니다.

동생이신 김기송선생님도 아동단분단장으로서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신 소년혁명가이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격구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들을 유인하다가 일제놈들에게 희생되시였습니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가정은 또한 곁방살이까지 하며 매우 가난하게 산 농민의 가정이였습니다.

일가분들은 회령에서 지주놈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시였습니다.

온 집안 어른들이 땀흘려 일하고 또 일하였지만 일제놈들과 지주놈의 등쌀에 살림은 펴이지 않고 어려워만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태여나실무렵에는 빚값에 얼마 안되는 땅과 오막살이마저 지주놈에게 빼앗기고 남의 집 웃방에서 곁방살이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처럼 모진 고생속에서도 일가분들은 언제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의좋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계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러한 훌륭한 가정에서 태여나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지런한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면서 참되게 자라나시였습니다.

참으로 회령고향집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뜻깊은 혁명의 집입니다.

제 2 과
부모님들의 교양을 받으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들의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여난 따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히 키우기에 힘쓰시였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나라안팎의 여러곳을 오가시면서 원쑤 일제놈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벌리고계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4살 나시던 때의 어느 겨울날이

였습니다.

나라 찾는 일로 늘 집을 떠나계시던 아버님께서 오래간만에 집에 들리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는 아버님께서 오시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였습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한번 집에 오시면 하루이틀밖에 계시지 않았지만 어린 따님에게 뜻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였기때문입니다.

이날도 아침이 되자 아버님께서는 따님을 데리시고 오산의 옛 봉화터에 오르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크기가 서로 비슷한 돌들이 널려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왜 큰 바위돌들을 여기에 쌓아놓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돌들은 원래부터 여기에 있던 돌이 아니라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봉화대를 쌓기 위해 먼 산에 가서 날라온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른 마을에 알려야 하겠는데 옛날에는 전보도 칠수 없고 전화도 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돌들로 봉화대를 만들고 불을 지펴놓으면 다른 마을에서 그 불을 보고 또 불을 지펴 그 다음마을에 알리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께서도 어서 커서 그들처럼 나라를 위한 일에 나서리라 마음다지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달리는 기차를 보시고도 일제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어느날 아버님과 함께 오산덕에 오르시였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 기차를 보게 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기차를 가리키시며 저기에 무엇을 실어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쌀도 실어가고 석탄도 실어가며 소나 돼지도 실어간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것을 어디로 실어가는가고 또 물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따님을 안아올리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저것은 일본놈들이 우리의 쌀과 석탄, 소, 돼지를 빼앗아 일본으로 실어가는것이다.》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왜놈들은 우리를 못살게 하는 나쁜 놈들이야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네가 옳게 말했다. 왜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나라의 모든것을 빼앗아가는 왜놈들이 너무 미워 두주먹을 꽉 틀어쥐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에게서도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였습니다.

오씨어머님은 늘 자신의 모범으로 자제분들이 나라 찾는 일에 한몸바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아버님께서 동지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깊숙이 간수해두시였던 기장쌀을 꺼내여 밥을 지으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있던 김정숙어머님의 언니가 웬일인가하여 어머님을 바라보시였습니다. 귀한 쌀을 꺼내여 밥을 짓는것이 이상스러웠기때문이였습니다.

따님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어머님은 《사람이란 마음이 고와야 한다. 그분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데 우리가 무얼 아끼겠니.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옛날 우리 녀성들이 외적을 막아 싸우는 군대를 잘 도와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라 찾는 일에 나선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시였습니다.

어느해 추운 겨울이였습니다.

살길을 찾아 먼길을 가던 한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김정숙어머님의 집에서 하루밤 묵어가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무릎이 다 드러난 꿰진 치마를 입고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또다시 먼길을 떠나려고 할 때

였습니다.

오씨어머님은 베치마를 꺼내여 그 어머니에게 주시면서 새것은 아니지만 입고 떠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베치마는 어머님이 나들이갈 때나 입으시군 하는 한벌밖에 없는 치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베치마를 선뜻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 추운 겨울에 무릎도 가리우지 못한 사람을 그냥 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고 하시며 끝내 치마를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김정숙어머님의 언니는 한벌밖에 없는 치마를 입혀보냈으니 어머님은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였습니다.

이때 오씨어머님은 귀한건 사람의 마음이며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은 곱게 먹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돈이나 재물 같은것은 모두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은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법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려운 집안살림을 도맡아하시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어린 따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왜놈들을 미워하고 나라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시였습니다.

제 3 과
어머님을 도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 어머님의 일손을 힘껏 도우시였습니다.

깊은 밤 어머님이 삯바느질을 하실 때면 잠에 드셨다가도 몇번이고 일어나 등불을 돋궈주시였습니다.

이른새벽 어머님이 아무리 조심스레 밥을 짓느라 하시여도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단잠에서 깨여나시였습니다.

《난 왜 어머니가 누우시는것도 깨여나시는것도 몰랐을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머님을 도와 부엌에 나가 아궁에 나무를 밀어넣기도 하시고 사발과 숟가락을 깨끗이 닦아놓기도 하시였습니다.

해별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오산덕의 뙈기밭에서 김을 매시던 오씨어머님은 밭머리에 있는 소나무가지에 그네를 매주시였습니다. 어린 따님이 혼자서 심심치 않게 그네를 뛰며 즐겁게 놀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몇번 그네를 타다가 그만두시였습니다. 땀흘리며 일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시였기때문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신께서도 김을 매보려고 어른

들이 쓰는 호미를 쥐여보시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너무 작아서 쥘수 없으시였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이 김을 매시는 밭고랑을 앞서나가며 손으로 풀을 뽑기 시작하시였습니다.

한참동안이나 풀을 뽑으신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시였습니다. 일손이 펴그나 쉬워지신듯 어머님께서 가볍게 호미질을 하며 따라오고계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에게 뒤질세라 또다시 풀을 뽑으며 앞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시며 어머님을 보고 방긋 웃으시였습니다.

어머님도 어린 따님이 너무 기특하여 따라웃군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젠 그만하고 그늘밑에 가서 놀라고 거듭 이르시며 힘든줄 모르고 김을 매나가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을 도와 나물도 캐시였습니다.

오씨어머님은 식량보탬을 하느라 하루종일 밭일을 하시고도 돌아오는 길에 나물을 캐야 하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김정숙어머님께서도 함께 나물을 캐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곁을 따라다니며 먹는 나물이 어떤 것인가를 눈에 익히시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나물캐

는 일을 혼자서 맡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물을 캐시고도 티 하나 섞이지 않게 다듬으시여 어머님이 두번다시 손질하지 않게 하시였습니다.

한창 소꿉놀이를 할 나이에 나물을 캐오는 어린 따님을 보며 어머님은 《네가 벌써 제 밥벌이를 하는구나.》라고 하시며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리용하신 바구니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일손을 돕는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라시였습니다.

제 4 과
지극한 마음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오씨어머님은 그때 어려운 살림에 보태려고 해마다 농사일의 짬에 회령천에서 자갈추기를 하시였습니다.

이날도 오씨어머님은 물속에서 자갈추는 힘든 일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잠간 허리를 펴려고 자갈밭우에 앉으신것이 그만 깜박 잠들게 되시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얼른 해빛을 등지고서시여 어머님의 얼굴에 그늘을 지어드리시였습니다.

얼마후 어머님께서 눈을 뜨시였을 때에는 어린 따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있었습니다.

《내가 잠이 들어 너를 고생시켰구나. 얼굴이 다 익었구나.》

오씨어머님은 목메여 말씀하시며 치마폭으로 따님의 얼굴을 닦아주시였습니다.

곁에서 함께 자갈을 추던 녀인들도 어머님에게 《정말 복딸을 두었수다!》, 《회령천에 효녀비를 세워야하겠수다.》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낟알고르는 곳에서 어머님의 콩고르는 일을 돕고계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쪽에 한알두알 콩이

떨어져있는것을 보시였습니다. 달구지로 실어들일 때 흘린 콩이였습니다.

얼마되지 않는것이였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지런히 걸어나가며 그것을 주어모으시였습니다.

열흘동안 모으니 그래도 한되가량 되였습니다.

오씨어머님은 그 콩을 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인제 조금만 더 주으면 우리 정숙이 고무신을 살수 있겠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낟알고르는 곳에 콩이 들어오지 않아 어머님에게 일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당장 온 식구를 굶기게 된 어머님은 저녁끼니거리를 구해보려고 집을 나서시였습니다. 몇집 돌아보시였으나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시였을 때였습니다.

뜻밖에도 콩삶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였습니다.

어머님은 급히 가마뚜껑을 열어보시였습니다. 그안에서는 뜨거운 김을 확 풍기며 누런 콩이 끓고있었습니다. 나어린 김정숙어머님께서 자신의 고무신을 사주려고 어머님이 깊숙이 건사해두신 콩을 꺼내 삶으시였던것입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시였습니다.

제 5 과
새 옹배기

회령고향집 부뚜막에는 작은 옹배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 이 옹배기로 아침저녁 물독에 물도 길으시고 김을 매시는 어머님께 샘물도 떠다드리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귀한 옹배기를 그만 깨뜨리시였습니다. 물을 길으시다가 돌부리에 걸채여 넘어지셨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돌부리에 채우신 아픔보다 하나밖에 없는 옹배기를 깬것이 너무 아쉬워 우시였습니다.

밭에서 돌아오신 오씨어머님은 따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깨진 옹배기는 때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날로 든든히 땜질해주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아끼시던 옹배기를 깬 아쉬움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으시였습니다.


회령고향집 부뚜막에 있는 옹배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새 옹배기

를 구해드려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가 하고 생각하시였습니다.

옹배기를 깨뜨린지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신 김정숙어머님께서 한낮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머님은 근심에 싸여 온 동네를 다니시며 따님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우물가에서 새 옹배기에 물을 퍼담는 따님을 만나시게 되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린 따님에게 새 옹배기가 어디서 났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키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어 불에 구워내는 토기점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새 옹배기를 얻어오게 된 사연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시였습니다.

토기점주인들은 일손이 모자랄 때면 마을어머니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일한 값으로 옹배기 같은 질그릇들을 몇개 주군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을어머니들을 따라 토기점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김정숙어머님께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업고 힘들게 일하는것을 보시였

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시여 아이를 보아주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 반가와 업고있던 아이를 김정숙어머님에게 업혀주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울며 보채는 아이를 업어 달래시였습니다.

일이 끝나자 어머니들은 일한 값으로 옹배기를 몇개씩 받아가지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옹배기들을 받아들고 김정숙어머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김정숙어머님의 등에서 아이를 받아내리우며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옹배기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을 골라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땀흘려 일하고서 받은 옹배기를 거저 받을수 없으시여 그냥 가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끝내 옹배기를 안겨주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하여 새 옹배기가 생기게 되였던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오씨어머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그처럼 속이 깊은 따님을 보시며 크게 감탄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자신

의 힘으로 새 옹배기를 마련하시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시였습니다.

제 6 과
자신보다 먼저 동무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였다.》

오산덕에 봄이 오면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산나물을 캐러 다니시였습니다.

그때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손이 빠르시여 늘 산나물을 제일 많이 캐시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실 때면 언제나 그것을 적게 캔 동무들과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캐는 경쟁을 하여도 뒤떨어진 동무를 도와주는것을 잊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산나물을 누가 제일 먼저 바구니에 채우는가 하는 경쟁을 하시게 되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되자 동무들은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산나물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동무만은 남들이 바구니를 거의 채울 때까지도 얼마 캐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산나물을 많이 캐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용히 그 동무에게 다가가시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동무는 나물캐러 오면서 그만 칼을 가져오지 못한것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울상이 된 그 동무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하고 한편이 되지 않겠니? 나는 캐기만 할테니 너는 손으로 다듬기만 하여라.》

그러시고는 이미 캐신 나물을 그 동무의 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이건 너의 몫이다. 이제부터 제꺽 한바구니 더 캐서 저 애들을 따라잡자!》

그 동무는 너무 좋아 순간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곧 앞서나가시면서 나물을 몇줌씩 캐서 한곳에 무져놓군 하시였습니다.

한편이 된 그 동무는 김정숙어머님의 뒤를 따라나가며 나물을 다듬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잠간사이에 두 바구니에 나물이 차고넘치였습니다.

제일 뒤떨어졌던 동무는 뜻밖에도 나물캐기경쟁에서 1등을 하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나물바구니를 들고 산을 내리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 어리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자신보다 먼저 동무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7 과
불쌍한 애기를 돌봐주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느날 어머님과 함께 빨래터에 나가시였다가 한 애기어머니를 알게 되시였습니다.

애기의 아버지는 일제놈들이 나무를 찍어가는 산에서 일하다가 통나무에 치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한살도 못되는 애기를 데리고 혼자 살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버지없이 자라는 그 애기가 불쌍하여 자주 업어주시면서 따뜻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애기는 김정숙어머님의 잔등에 업혀서도 때때로 어머니를 찾으며 울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버들피리도 불어주시고 고운 꽃을 꺾어다 흔들어주기도 하시였습니다. 때로는 뒤울안에서 빨갛게 익은 꽈리를 뜯어 껍질을 벗긴 다음 애기의 입에 물려주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러

면 애기는 짜리를 빨며 해죽해죽 웃으면서 잘 놀았습니다.

애기어머니는 김정숙어머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에 마음속아픔도 다 잊고 기운을 내여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방아를 찧는 동안 애기를 업어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애기가 몹시 보채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애기의 엄지손가락이 검붉게 독을 쓰며 부어올라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손가락을 너무 빨다보니 그곳이 곪기 시작한것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애기의 손을 꼭 쥐고 입김으로 불어주시였습니다. 말 못하는 애기가 얼마나 아플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프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문득 생손앓이를 하는데는 짜리가 좋다고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였습니다.

그런데 짜리는 고향집처마밑에 높이 달아맨 뒤여서 뗄수가 없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이 밭에서 돌아오시자 처마밑에 달아맨 짜리를 몇개만 떼여달라고 하시였습니다.

짜리를 받아드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급히 집을 나가시였다가 어두울무렵에야 돌아오시였습니다.

그때에야 오씨어머님은 따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애기의 집에 짜리를 가져다주고 온 사연을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이웃을 생각할줄 아는 따님이 더없이 사랑스러우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사람들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시였습니다.

제 8 과
《우리는 왜 못사나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시였습니다.

때문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저 스쳐지나지 않으시였습니다.

고향집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고도 알고싶고 묻고싶은것이 너무나 많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가운데서도 세상이 왜 잘사는 부자놈들과 못사는 가난한 사람들로 되여있는지 알수 없으시였습니다.

더우기 어떻게 되여 일제놈들이 조선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지 리해되지 않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고향집가까이에 건설된 발전소를 보시고도 생각이 많으시였습니다.

일제놈들은 조선사람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람들에게 발전소가 일떠서면 집집마다 전기불을 보게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발전소건설에 동원시키기 위한 얼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발전소가 건설된 다음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발전소가 완공되자 모든 집들에 전기를 보내준것이 아니라 잘사는 놈들에게만 보내주었습니다.

경찰서와 수비대, 면사무소와 같은 일제기관이나 지주, 자본가놈들을 비롯한 돈있는 놈들은 환한 전기불을 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너무도 리해되지 않으시여 어머님에게 왜 우리는 전기불을 보지 못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오씨어머님께서는 그것이 다 일제놈들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웃집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땀을 흘리며 석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전기불을 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 동무들과 함께 발전소에 가서 그안을 들여다보시였습니다.

가시철조망으로 둘러막힌 발전소에서는 조선사람 서너명이 얼굴에 까만 석탄가루를 묻힌채 석탄불을 때고 있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이웃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제놈들은 손에 검댕이 하나 안묻히고 그저 놀면서도 전기불을 보며 잘사는데 조선사람들은 왜 자기가 전기를 일으키고도 등불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채 굶주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깊어가는 생각속에 김정숙어머님의 마음도 나날이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우리는 왜 못사나요?》

어리신 그 나이에 벌써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하시는 물음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따님에게 이게 다 제 나라가 없는탓이며 남의 등을 쳐먹는 일제놈들때문이라고 대답해주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아무리 일해도 이 가난을 면할수 없다, 어서 밝은 세상이 와야 하겠는데 세상은 자꾸 어두워만 간다고 안타까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

서 빨리 일제놈들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밝은 세상이 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뛰여난 생각으로 세상형편을 꿰뚫어보시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바로잡으실 생각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제 9 과
선교사놈들을 미워하시며

회령고향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2층으로 된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유리창들이 번쩍이는 이 집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는 달리 정말 으리으리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놈들이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빨래터로 가시다가 노랑대가리 선교사놈을 보시게 되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와 있나요?》

어리신 따님이 어머님께 물으시였습니다.

오씨어머님께서는 따님의 물음에 한마디로 대답해주실수가 없어 잠시 망설이시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놈들은 조선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차려놓았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조선사람들을 위해주는것처럼 하였지만 실지로는 그뒤에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나쁜짓을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대답을 기다리시다가 또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옆집어머니는 왜 병보러 갔다가 쫓겨났나요?》

어머님께서는 그때에야 돈이 없어 쫓겨났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놈들도 돈밖에 모르는 지주놈들과 꼭같은 놈들이야. 다르다면 거짓말을 잘하는것이지. 너 〈하느님〉을 봤니? 〈하느님〉이라는것은 없다. 그런데 저놈들은 〈하느님〉이 있다고 생억지를 쓰는구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계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무서운 거짓말쟁이들을 왜 그냥 두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어머님께서는 그것이 다 일본놈들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놈들을 쳐없애야 저런 거짓말쟁이들도 다 내쫓을수 있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다음부터 선교사놈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저 스쳐지나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선교사놈들이 나

쁜 놈들이라는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시게 되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아이가 선교사놈들이 사는 2층집앞을 지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 있는 개들이 빵을 게걸스럽게 먹는것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빵이 너무도 먹고싶어 울타리밖에서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이것을 보게 된 선교사놈은 아이를 물라고 개들을 부추기였습니다.

개들은 왕왕 짖어대며 아이에게 사정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잠간사이에 그 아이는 정신을 잃고 울타리밖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선교사놈의 행동에 치가 떨려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시였습니다. 선교사놈들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거짓말쟁이들이며 승냥이같은 놈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시였습니다.

가난한 조선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왜 그 아이를 물라고 개를 풀어주었겠는가, 빌어먹으면서 사는 그 아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선교사놈들이 더없이 증오스러우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후날 그때를 돌이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날 조선에 와있은 서양선교사놈들은 모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길잡이군들이였습니다.

…

우리 고향에도 선교사놈들이 와있었는데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놈들이 몹시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때 나는 놈들이 조선사람을 위한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어렸을 때에 벌써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선교사놈들의 속심을 꿰뚫어보시고 그놈들을 끝없이 미워하시였습니다.

제 10 과
《고향아, 잘 있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백화란만한 봄날 회령을 찾는 사람들은 온 시가지가 백살구꽃속에 묻힌 풍경을 구경하게 된다.

하지만 김정숙은 그처럼 아름다운 고장에서 몇년밖에 살지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5살 되시던 해인 주체11(1922)년 봄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는 더는 회령에서 살수 없게 되

였습니다. 늘어난 빚때문에 지주놈에게서 얻어부치던 얼마 안되는 땅마저 다 빼앗기고 밖에 나앉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아버님께서는 나라 찾는 운동을 더 힘있게 벌리시기 위하여 가족을 두만강건너 중국땅으로 옮겨갈 결심을 내리시였습니다.

고향땅을 떠날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시였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너무도 서러워 잠들수가 없으시였습니다.

드디여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오씨어머님께서는 보짐을 머리에 이고 따님의 손을 잡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집을 나서시여 사립문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였습니다. 아침저녁 물길러 다니던 박우물도 손때묻은 방아간도 가지 말라고 몸부림치는듯싶었습니다.

어느새 알았는지 이웃에 사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그리고 동무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나보겠는가고 하면서 북문밖까지 울며 따라왔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손에 이끌리여 어느덧 나루터에 이르시였습니다.

정든 고향을 두고 남의 나라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흐느껴우는 따님을 달래며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제 살길이나 찾자고 이 강을 건느겠느냐.… 이국땅에 가서도 언제나 정든 고향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는 따님을 이끄시여 고향산천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세워주시였습니다. 어린 마음속에 고향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새겨주시려는것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꽃속에 잠긴 오산덕, 잊을수 없는 조국의 산과 강들을 오래오래 바라보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며 어머님과 함께 고향에서 보내신 가지가지의 일들이 어제일처럼 눈앞에 떠오르시였습니다.

참으로 보면 볼수록 떠나고싶지 않은 정든 곳이였습니다.

언제면 다시 돌아와 꽃피는 오산에도 오르고 두만강가에도 나와 마음껏 즐길수 있을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루배에 오르시면서 몇번이고 고향산천을 뒤돌아보시였습니다.

《고향아, 잘 있거라. 내 기어이 돌아오리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고향땅을 떠나시면서 기어이 다시 돌아올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제 11 과
할머님께 바치신 정성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일가가 중국땅 베이거우(북구)라는 곳에 온 후인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밤낮으로 집안일을 도우시던 할머님께서 그만 앓아누우시게 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잠시도 할머님곁을 뜨지 않으시고 병구완을 하시였습니다. 머리도 짚어드리시고 베천을 찬물에 담그었다가 이마에 얹어드리기도 하시였습니다.

3일동안이나 정성들여 병을 돌봐드리시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마을에 사는 동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님은 높은 열로 앓으시면서도 밖에 한번 나가지 않으시는 어린 손녀를 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우리 정숙일 생각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야 하겠다. 그래야 정숙이가 훨훨 나다니지 않겠니…》

그러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할머님의 병이 나을수 있을가 하는 한가지 생각뿐이시였습니다.

고향 회령에 계실 때부터 할머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리신 김정숙어머님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4살 때에 벌써 바느질하시는 할머님께 바늘귀도 꿰드리시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으로부터 늘 우리 정숙이는 내 눈과 같다고 칭찬을 받으시였던것입니다.

그러던 할머님이 앓아누우셨으니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안타깝기만 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무를 할머님곁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어찌된 일인지 몇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시였습니다.

날이 어두워 밭에서 돌아오신 오씨어머님은 이 일을 전해듣고 급히 따님을 찾아 문밖을 나서시였습니다. 오라버님도 따라섰습니다.

이때 큰길로 김정숙어머님께서 웬 사람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다오거우(8도구)에 사는 의사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전에 어머님과 함께 그 의사의 집에 들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20리나 되는 먼길을 혼자 걸어가 그 의사를 데려오신것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과 의사의 얼굴에서는 땀이 물흐르듯 하였습니다.

의사는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할머님의 맥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몇대 놓고나서 오씨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집 정숙이가 의사보다 낫수다. 어찌나 할머님의 병세를 상세히 말하는지 이렇게 약까지 지어가지고 왔수다. 이 약을 쓰시면 인차 차도가 있을거우다.》

그러면서 할머님의 병이 나으면 그것은 자기의 침이나 약때문이 아니라 어린 손녀의 정성이 지극해서 나으신줄 아시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할머님은 병을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였습니다.

제 12 과
회령집 작은딸

베이거우에서 김정숙어머님의 가정은 회령에서 온 집이라 하여 회령집으로 불리웠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집안식구들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을 뜨겁게 위해주시였습니다.

살림은 말할수 없이 어려웠지만 일가분들은 김정숙어머님의 기특한 소행에서 늘 기쁨과 힘을 얻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쩌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기 몫을 건사해두시였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오라버님과 언니에게 주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동네잔치집에서 과줄 몇개를 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오씨어머님은 그것을 자제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시였습니다.

다음날 저녁이였습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나물캐러 갔던 김정숙어머님의 언니는 집에 돌아오자 너무 힘들어 방에 누웠습니다.

이때 김정숙어머님께서 베천으로 깨끗이 싸두셨던 과줄을 언니의 손에 쥐여주시였습니다. 이런 때 쓰시려고 과줄을 없애지 않고 보관하셨던것입니다.

언니는 그 마음이 기특하여 자기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것 같다고 하면서 그것을 도로 동생의 손에 쥐여주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앓는 할머님의 머리맡에 그 과줄이 또다시 놓여있는것이였습니다.

언니는 《애두 정말…》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여 김정숙어머님과 집안사람들의 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라버님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김정숙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굳세여지고 힘이 솟는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이웃들사이에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벌써 며칠째 낟알구경을 못하신 일가분들을 위하여 산에 나물캐러 갔다가 돌아오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산밑에 있는 외딴집에서 어린 애기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물바구니를 옆구리에 낀채 그 집으로 가시였습니다. 애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혹시 집안에 애기가 혼자 누워있는것이나 아닐가?)

이렇게 생각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손기척을 내시고 조용히 문을 여시였습니다.

방안에는 그 집 어머니가 배고파 우는 애기에게 빈 젖을 물린채 누워서 앓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얼른 나물바구니를 내려놓으시고 우는 애기를 업어 잠재우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날라다 부엌아궁에 불을 때고 캐오신 나물로 죽을 쑤어 그 어머니에게 대접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남은 산나물을 다 다듬어 아침거리까지 마련해주시고서야 빈 바구니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시였습니다.

다음날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그 어머니는 이 사실을 이웃사람들에게 감탄을 담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회령집 작은딸은 어른들보다 더 의리가 깊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후부터 동네사람들은 김정숙어머님을 이름으로가 아니라 회령집 작은딸이라고 사랑담아 불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남달리 깊은 인정과 아름다운 마음씨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시였습니다.

제 13 과
잊을수 없는 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는 베이거우에서도 지주놈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온 집안이 가난에서 벗어나보려고 참으로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림은 펴이지 않고 집에는 불행만이 겹치였습니다.

어느해 추운 겨울날이였습니다.

오래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님께서 앓는 몸으로 가까스로 집에 돌아오시였습니다. 나라 찾는 운동을 벌리시다가 일제놈들의 추격을 받고 오랜 시간 눈속에 몸을 숨기다보니 추위에 그만 온몸을 얼구시였던것입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이번에는 산에 나무하러 가시였던 오라버님이 산림간수놈한테 매를 맞는 억울한 일을 당

하시였습니다.

그때 오라버님은 땔나무를 하려고 산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산림간수놈은 승인도 없이 나무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뺨을 치고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불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10살 되시던 해 봄 지주놈이 아들놈들을 앞세우고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씨어머님은 빚을 꼭 물터이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지주놈은 정 빚을 물지 못하겠으면 딸을 내놓으라고 호령질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빚값에 사람을 끌어가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지주놈과 맞서싸우시였습니다.

지주놈은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김정숙어머님의 언니에게 와락 달려들어 손목을 잡아끌었습니다.

지주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언니의 모습을 보시는 김정숙어머님의 가슴은 지주놈에 대한 분노로 하여 떨리였습니다.

《어머니, 언니를 끌어가지 못하게 해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소리치시였습니다.

《놓아라, 이놈아, 이게 무슨짓이냐!》

어머님은 크게 소리치시며 지주놈의 손에서 사랑하

는 따님을 빼앗아내려고 하시였습니다.

짐승같은 지주놈은 어머님을 구두발로 마구 차서 넘어뜨리였습니다.

때마침 집뜨락으로 오라버님이 달려오시였습니다.

오라버님은 주먹으로 지주놈의 낯짝을 사정없이 들이치시였습니다.

바빠난 지주놈은 뒤로 벌렁 나가넘어지면서 제 아들놈들을 찾았습니다.

아들놈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저마끔 몽둥이를 들고 오라버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바람에 오라버님은 다리를 크게 다치시였습니다.

이날 지주놈은 끝내 언니를 끌어가고야말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억울하고 분하여 견딜수가 없으시였습니다. 언니를 끌어가고 오라버님을 불구로 만든 이날의 원한은 김정숙어머님의 가슴속에 두고두고 잊을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어지럽고 악착한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뼈빠지게 일을 해도 결코 잘살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달으시였습니다.

제 14 과
《녀자는 총을 들고 싸우는 군대가 될수 없습니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11살 되시던 해 봄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분들은 악착한 지주놈때문에 베이거우에서 더는 사실수 없게 되였습니다.

지주놈은 김정숙어머님의 언니를 빼앗아가고도 성차지 않아 소작주었던 땅까지 떼였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일가는 하는수없이 이곳을 떠나 시산리(서산리)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날이 더해만 가는 천대속에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라없는 설음을 뼈속깊이 느끼시면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을 더욱 불태우시였습니다.

이무렵 아버님께서는 바깥출입도 못하시고 자리에 누워계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자제분들을 자주 몸가까이 불러앉히시고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는데서 조선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해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느날 어린 따님에게 나라 찾는 운동에 나선 독립군들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문득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녀자는 총을 들고 싸우는 군대가 될수 없습니까?》

참으로 기특한 물음이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따님을 바라보시던 아버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이 녀자라고 다르겠니, 녀자도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될수 있다고 힘주어 대답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안에도 남자들처럼 총을 들고 잘 싸운 이름난 녀자군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서 새 힘을 얻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어서 커서 일제놈들을 족치는 녀자군대가 되고싶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랑하는 따님에게 방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시였습니다.

문가에 기대앉으시여 조국의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는 아버님의 두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였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채 이역땅에 묻히게 되였으니 분하고 원통하구나!》

아버님께서는 흐느껴우는 따님의 얼굴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너는 어데 가서나 고향을 잊지 말고 조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조선을 위해 싸워라.》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신채 낯선 남의 나라땅에서 원한의 눈을 감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크나큰 슬픔속에서 아버님의 마지막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면서 굳게 다짐하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그리운 고향을 짓밟고 아버님을 빼앗아간 원쑤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을 쳐부시는 싸움길에 내 기어이 나서리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나이에 총을 들고 원쑤놈들과 싸우실 큰뜻을 품으시였습니다.

제 15 과
배움의 기쁨을 안으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 배우려는 열성이 누구보다 높으시였습니다.

때이르게 철이 드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남의것을 부러워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가는 아이들만은 무척 부러워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책보를 끼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보실 때면 아버님에게 묻군 하시였습니다.

《아버지, 몇살이면 학교에 가게 되나요? 나도 학교에 갈수 있을가요?》

그때마다 아버님께서는 선뜻 대답을 못하시다가 《아

무렵, 꼭 가야지.》 하며 한숨을 짓군 하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집안살림이 너무 어려워 나이가 지나도록 학교에 가지 못하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푸옌(부암)마을로 이사하시여서부터는 집안의 기둥이던 오씨어머님마저 앓아누워 가정형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배울래야 배울수 없으시였던 김정숙어머님께서 13살이 되시던 해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푸옌마을에 밤마다 글을 배워주는 야학이 생겨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혁명가들에 의하여 야학이 세워진것이였습니다.

야학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을뿐아니라 남자나 녀자를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맨 선참으로 야학에 나가시였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후날 함께 싸우던 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야학이 생겨 글을 배워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난 세상에 태여나 그렇게 고마운 일을 그때 처음으로 당했어요. 나는 그때 너무 기뻐 흑판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가하

여 배워주는 내용을 깊이 새기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어와 산수, 력사와 지리 등 어느 과목내용이나 환히 꿰드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데만 그치지 않으시고 앞질러가며 폭넓게 공부하시였습니다.

어느날 야학선생은 국어시간에 《로동자와 농민》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배워주었습니다.

야학선생의 설명이 끝나자 야학생들은 이 문제를 놓고 토론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배워준 내용만을 가지고 되풀이하다보니 토론에서는 별로 들을만 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동무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공장과 땅의 주인은 로동자와 농민인데 왜 그것을 자본가와 지주놈들이 독차지하고있을가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들 생각을 거듭했지만 배운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야학생들은 언제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김정숙어머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조용히 교과서를 펼쳐보이시였습니다.

《이것을 보지, 그 대답은 여기에 다 있어.》

그것은 다음날에 배우기로 되여있는 제2과 《자본가와 지주》였습니다.

어느 시간에 다 학습하시였는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내용을 실토리를 풀듯 줄줄 설명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에서 보신 내용을 섞어가시면서 자본가와 지주놈이 어떤 놈이고 그놈들이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는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습니다.

그때에야 야학생들은 그날 배운것만 공부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책들을 읽으며 폭넓게 공부하여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야학선생도 공부를 하려면 김정숙어머님처럼 하여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배우고 싶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기쁨을 안고 야학방에서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제 16 과
학습토론을 알기 쉽게

푸옌마을의 야학에서는 배운 지식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토론을 자주 조직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토론을 한번 하시여도 빈말이 아니라 실지 생활과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야학에서는 《우리 소작인들은 왜 못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조직하였습니다.

야학생들은 저마다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까지 열렬히 토론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청년은 다른 책에서 본 힘든 말을 써가면서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토론은 어쩐지 야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토론이 실생활과 동떨어져 빈말에 지나지 않았기때문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다른 동무들의 토론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부암마을의 형편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간 야학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김정숙어머님께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푸옌마을을 놓고 토론하시겠다는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이였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푸옌마을에 잘사는 사람은 몇이고 못사는 사람은 몇인가부터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그러고보니 마을에서 잘사는 사람이란 오직 지주 한놈뿐이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굶주리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이 한놈의 지주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땅을 얻어부치며 헐벗고 굶주리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지주놈들이 어떻게 농민들을 착취하는가 하는것을 설명해주시였습니다.

땅없는 농민들은 땀흘려 농사를 짓고도 가을이면

지주놈에게 절반이상을 소작료로 빼앗긴다, 거기에다 종자값이요, 무슨 값이요 하면서 여러가지 빚들을 물고나면 남는것은 얼마 없다, 그래서 할수없이 지주놈에게서 쌀을 꾸어오면 그것이 배로 늘어나 결국은 빚더미우에 앉게 된다, 그러니 지주놈에게서 땅을 얻어부치는 소작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러시면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제놈들과 지주놈들때문에 살기 좋은 고향땅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도 회령땅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왔으며 이곳에 온 후에도 지주놈의 착취와 천대를 받고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지주놈의 죄행을 폭로하시였을 때였습니다.

야학생들은 저저마다 주먹을 부르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주놈을 타도해야 한다고 웨치였습니다. 푸옌마을이나 자기 집 형편과 결부하여 이야기하시는 김정숙어머님의 토론에 큰 감동을 받았던것입니다.

이날 야학생들은 이 토론을 들으며 자기들이 왜 못사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학습토론을 한번 하여도 알기 쉽게 하시였습니다.

제 17 과
김로인을 찾아가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느날 야학생들로부터 마을의 김로인에 대한 말을 듣게 되시였습니다.

그는 녀자들이 나돌아다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 며느리와 딸을 야학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것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무들에게 그 로인을 한번 찾아가보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김로인이 고집이 세기때문에 절대로 돌려세울수 없다고 하면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김로인은 고생을 많이 한분이니 우리가 잘 이야기하면 딸과 며느리를 꼭 야학에 내보낼것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을 앞세우고 로인의 집을 찾아가시였습니다.

김로인은 김정숙어머님을 보더니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습니다. 회령집일가분들에 대해서는 늘 존경해오던 로인이였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김로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신 다음 《아버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로인은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가고 물었습

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선에서 고생하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야 조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 인민들이 겪고있는 참상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에야 김로인은 생각되는것이 있었던지 모두 앉으라고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로인은 자기가 살던 아름다운 고향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가슴을 치며 울던 일, 정든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오던 일을 눈앞에 보는듯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김로인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정말 조국이 그립구나. 죽어도 조국땅에 묻히지 못하게 된 이 원한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며 긴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로인이 이야기를 끝내자 또 이런 청을 드리시였습니다.

《아버님, 래일 저녁 우리 야학방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든 야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야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나?》

《야학은 우리 말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력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잠시 생각하던 김로인은 야학이 그런 곳이라면 내가

왜 안 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렇게 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로인의 딸도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로인은 마음이 즐거워져 그래 너도 가고 며느리도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김로인의 며느리와 딸은 야학에 다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때까지 늙은이들의 눈치만 보고있던 몇몇 녀자들도 기를 펴고 야학에 나왔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있던 사람들을 깨우쳐주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8 과
수수 몇이삭때문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13살 되시던 해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마을의 녀인들은 가을을 맞으며 되놀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되놀이는 가을이나 겨울에 녀인들이 낟알을 모아 음식을 만들어놓고 모여앉아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놀이였습니다.

마을녀인들은 되놀이를 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좋아하면서 하루사이에 되놀이에 쓸 쌀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의 집에서만은 쌀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집식구가 많은데다 앓는분들이 계시였고 얼마전에는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여 장례까지 치르다보니 쌀이 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일가분들은 늘 풀죽으로 끼니를 에워가고계시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잘 알고있는 마을녀인들은 김정숙어머님께 쌀은 자기들이 내겠으니 되놀이에 꼭 참가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생은 그길로 소작밭에 나가 잘 여문 수수 몇이삭을 잘라다 누님의 몫으로 내시였습니다.

마을녀인들은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되놀이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지주놈은 밭에서 잘라온 수수 몇이삭을 구실로 김정숙어머님의 집에 큰 불행을 들씌우고말았습니다.

되놀이가 있은지 며칠이 지나서 악착하기 그지없는 지주놈이 김정숙어머님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놈은 김정숙어머님과 일가분들에게 마구 손짓까지 하면서 왜 마음대로 수수이삭을 잘라왔는가고 야단쳤습니다.

지주놈은 욕을 퍼붓다 못해 김정숙어머님의 동생을 《도적》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에 넘기겠다고 을러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더는 참을수 없으시였습니다.

《우리가 가꾼 밭에서 수수이삭을 잘라왔는데 어째서 〈도적〉이라고 해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주놈에게 들이대시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지주놈은 어쩔줄 몰라하다가 《땅임자》도 몰라본다고 하면서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놈은 당장 빚을 물지 못하겠으면 누구든지 자기집에 와서 한해겨울 연자방아를 돌리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땅을 떼는것은 물론 집을 헐어버리고 김정숙어머님의 동생을 머슴으로 끌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치솟는 격분을 참을길 없으시여 이를 악물고 지주놈을 쏘아보시였습니다.

지주놈은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매일같이 달려들어 땅을 떼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온 집안이 굶게 된 형편을 보고만 있을수 없으시였습니다. 더우기 앓고계시는 어머님과 형님을 집도 없이 밖에 내앉히고 사랑하는 어린 동생을 지주집머슴으로 보내고싶지 않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분하신대로 자신께서 지주놈의

집 연자방아를 돌리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일가분들은 물론 야학에 함께 다니던 동무들도 가지 말라고 김정숙어머님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에게 한해겨울만 고생하면 되니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며 지주집마당 한구석에 있는 연자방아간으로 가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수 몇이삭때문에 어리신 나이에 지주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지주놈들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살수 없는 악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시였습니다.

제 19 과
피눈물나는 머슴살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13번째로 맞으시는 생일이였습니다.

이날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홑옷을 입으시고 지주집 연자방아를 돌리고계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겪으시는 머슴살이는 참으로 피눈물나는것이였습니다.

연자방아간은 말이 방아간이지 밖이나 다름없었습니

다. 문짝대신 가마니가 매달려있고 벽까지 다 떨어져 눈보라가 일면 잠간사이에 구석마다 흰눈이 한가득 쌓이군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얼굴이 얼어들고 손등이 터갈라져 아파오셨지만 잠시도 쉴수 없으시였습니다. 아직 찧어야 할 낟알가마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분하고 서러운 마음을 참으시며 연자방아를 돌리고 또 돌리시였습니다.

이때 밥보자기를 드신 어머님이 동생과 함께 찾아오시였습니다.

생일에도 따님을 쉬우지 못하시는 어머님의 가슴은 찢어지는것만 같으시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전날 지주놈을 찾아가 래일이 우리 정숙이의 생일인데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지주놈은 절대로 안된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놈은 빚진 놈의 신세에 생일은 무슨 생일인가고 떠벌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사랑하는 따님에게 더운 밥이라도 한그릇 먹이고싶으시여 이렇게 찾아오신것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밥보자기를 푸시고는 연자방아채를 잡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따님에게 밥

이 식기 전에 어서 들라고 하시였습니다.

동생도 누님이 밥을 드는 시간만이라도 일손을 도와드리려고 연자방아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앞을 막아나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십시오. 무엇때문에 어머니까지 이 집 연자방아를 돌리겠습니까. 어머니와 기송이가 이 집 쌀 한말 더 찧어준다고 우리 집 처지와 내 처지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저 가슴만 더 아프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끝내 어머님과 동생이 연자방아를 돌리지 못하게 하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과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견디시였습니다. 눈물을 보고 좋아할 놈은 짐승같은 지주놈뿐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다시 연자방아채를 잡으시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주놈이 더없이 증오스러우시였습니다.

지주놈의 악착스러운 행위는 생일에 일을 시키는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잠시라도 연자방아소리가 나지 않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제 아들놈들을 시켜 소란을 피우군 하였습니다.

악착한 지주놈은 온 동네가 다 쉬는 설날에도 쉬우지 않고 방아를 돌리게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때마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길 없으시였습니다.

한바퀴, 또 한바퀴 힘겹게 연자방아를 돌리시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시였습니다.

…
몰아치는 찬바람에 몸을 떨면서
짐승같은 농노신세 가련도 하다
…
붉은 주먹 번쩍 들어 저주를 하며
싸우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
…

정말 지주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살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에 차넘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고르롭지 못한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엎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제 20 과
조선의 새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14살 되시던 해 봄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오라버님은 그때 나라 찾는 큰일을 하느라 밤낮없이 뛰여다니시였습니다.

그러나 혁명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일가분들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숙어머님의 형님은 오라버님의 건강이 걱정스러워 무슨 일로 늘 밤잠을 자지 않고 다니시는가고 물었습니다.

오라버님은 웃으시면서 밤이슬을 받아 마시는게 병에 좋다고 해서 밤마다 밖에 나간다고 대답해주시였습니다.

밤이슬이 왜 약이 될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분명 거기에 다른 깊은 뜻이 있다고 느껴지시였습니다. 오라버님이 걷고계시는 밤길이 꼭 나라를 찾는 큰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께서도 하루빨리 그 길에 나서고싶으시였습니다.

이튿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선생에게 밤이슬이 약이라는데 그 약을 어떻게 하면 마실수 있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였습니다.

야학선생은 오라버님으로부터 벌써 이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밤이슬이 누구에게나 약이 되는게 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해 밤길을 많이 걷는 사람에게만 약이 된다고 대답해주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맞는 이슬이라면 저도 맞아보고 싶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선생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야학선생은 몹시 기뻐하면서 김정숙어머님에게 오늘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것이였습니다.

《지금 캄캄한 조선의 밤하늘엔 유난히 밝은 새별이 솟아 짓밟히는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쳐주고있습니다.…

그 별이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이제 억눌리고 짓밟힌 캄캄한 조선땅에 동이 터올것입니다.》

귀담아 이야기를 들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눈앞에는 아버님이 그렇게도 보고싶어하시던 밝은 세상이 금시 펼쳐지는것만 같으시였습니다. 그럴수록 조선땅을 비쳐주는 그 새별에 대하여 알고싶은 마음이 불같이 솟구치시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자꾸 에돌지 말고 곧바로 말씀해주실수 없겠습니까. 그 새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짓밟힌 조선땅에 동이 튼다니 밝은 세상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순간 야학선생은 자기가 김정숙어머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있었다는것을 느끼였습니다.

야학선생은 김정숙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뜨겁게 말하였습니다.

《정숙동무, 용서해주오. …탁월한 령도자를 이미 모시고있으면서도 정숙동무에게 이제야 알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야학선생은 김정숙어머님께 조선의 새별은 바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선생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감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님이 낮에 밤을 이어 뛰여다니시는것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는것도 알게 되시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선의 새별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잠들수 없으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오라버님처럼 자신께서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억세게 걸어가리라 마음다지시였습니다.

제 21 과
혁명조직으로부터 받은 첫 임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14살 되시던 해 어느날 혁명조직으로부터 첫 임무를 받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약속된 장소인 난산(남산)기슭 너럭바위곁으로 가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야학선생이 김정숙어머님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야학선생으로부터 마을에 격문을 뿌릴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습니다.

격문에는 농민대중을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씌여져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격문뭉치를 가슴에 품고 마을을 향하여 걸음을 다그치시였습니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캄캄한 밤이였습니다. 어디서 바스락소리만 나도 가슴이 쿵쿵 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께서 맡으신 임무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영예로운 과업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지시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이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리저리 큰 골목길을 에도시며 빠른 동작으로 격문을 뿌리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에게 제일 못된짓을 하는 지주놈의 집 대

문짝에는 따로 준비하신 큼직한 격문을 풀로 든든히 붙여놓으시였습니다.

날이 밝자 온 푸엔동이 법썩 끓었습니다.

사람들은 《간밤에 때아닌 흰눈이 내렸다!》고 웅성거렸습니다.

집마당과 담벽, 우물가 등 곳곳이 격문으로 하얗게 뒤덮여있었습니다.

《조선농민들이여!

우리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는 삼천리금수강산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발굽밑에 짓밟히고있다.

강도 일제와 반동적지주, 자본가놈들은 우리 농민들을 억압하고 고혈을 짜내여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하고있다.

농민대중이여, 궐기하라!

강도 일제를 타도하자!

일제의 주구들과 악질지주들을 타도하자!

조선혁명 만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격문을 주어 읽으며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도 리지주놈의 집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속이 씨원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리가놈이 얼이 나간 모양이야, 아직도 대문짝에 붙은 삐라도 뜯지 못하는걸 보니…》

그놈의 집 대문에는 고간에 쌓아둔 쌀이 농민들의

피땀이라는것을 아는가? 농민들의 피땀으로 피둥피둥 살찐 네놈을 그대로 둘줄 아느냐 하는 내용의 글발들이 그때까지 그냥 붙어있었던것입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통쾌해하는 사람들속에 섞이여 함께 격문을 읽으시며 첫 임무를 수행하신 보람을 한껏 느끼시였습니다.

제 22 과
훌륭히 수행하신 통신련락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직으로부터 얼마 떨어져있는 마을에 통신쪽지를 전하라는 임무를 받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 녀동무와 함께 나물캐는 소녀로 가장하고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느 한 강우에 놓인 다리에 들어서시였을 때였습니다.

강건너편에서 경찰 두놈이 나타나더니 다리우에 올라서는것이였습니다.

그놈들이 바로 전날 그 다리를 지키던 놈들이였습니다. 그때 놈들은 지나가던 할머니의 짚신을 벗겨보고 농민들의 호미자루까지 뽑아보면서 눈을 밝히였습니다.

나물바구니를 뒤지는 날이면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통신쪽지가 바로 나물바구니의 식칼자루속에 들어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놈들과 마주서는 순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애, 길을 비켜드리자.》라고 소리치면서 앞선 동무에게 눈짓을 하시였습니다. 널다리를 구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 앞동무가 급히 돌아서서 발에 힘을 주자 널다리가 마구 흔들거렸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거리는 척 하시다가 바구니를 강가에 떨구시였습니다.

그바람에 바구니에 담겼던 산나물이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두 소녀는 저마다 제탓이 아니라고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놈들은 두 소녀의 다툼질이 재미있었던지 히죽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곧 강가에 내려가시여 흩어진 나물과 식칼을 바구니에 담으신 다음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에도 혁명조직앞에 어려운 련락임무가 나설 때면 도맡아나서시였습니다.

그해 여름이였습니다.

혁명조직에서는 급한 련락임무가 나서자 제일 믿음직한 김정숙어머님께 그 임무를 맡기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체없이 조카애를 업고 목적지

로 달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웃마을가까이에 거의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마을쪽에서 경찰놈들이 마주 걸어오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것을 느끼시였으나 태연히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마주 오던 경찰놈들은 다짜고짜로 김정숙어머님에게 통신련락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서 따지고들었습니다.

《저 웃마을 언니네 집에 젖 얻어먹이러 가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등에 업은 아이를 가리키며 대답하시였습니다.

경찰놈은 누구를 속여넘기려고 하는가고 하면서 무작정 몸수색을 하였습니다. 아무 트집도 잡지 못한 놈들은 김정숙어머님을 바다오거우경찰서로 끌고가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급한 통신쪽지를 제시간에 전달할수 없게 될것이였습니다.

순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등에 업은 조카애를 욕하시며 길옆에 내려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오줌을 쌌다고 짜증을 내시며 조카애의 엉치를 때리시였습니다.

그러자 조카애는 불에 덴것처럼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젖은 기저귀를 빼드시고 경찰놈

들에게 그렇게 못 믿겠으면 언니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면서 마을로 달리시였습니다. 기저귀속에 통신쪽지가 들어있었던것입니다.

경찰놈들은 애기까지 봐달라고 하는 말에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제갈길로 가버리고말았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그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대담하고 슬기로운 지혜로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시고 통신련락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였습니다.

제 23 과
군중을 불러일으킨 선동연설

주체20(1931)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해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시였습니다.

소년선봉대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어주신 청소년들의 반군사조직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시면서 조직앞에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억세게 싸울것을 굳게 맹세다지시였습니다.

그때 김정숙어머님의 나이는 14살이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와 그 앞잡이 지주, 자본가놈들을 미워하고 그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려는 각오는 누구보다도 높으시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에서도 김정숙어머님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푸옌마을의 학교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군중모임이 열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제놈들의 침략적죄행을 폭로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마을의 혁명조직에서 마련한 모임이였습니다.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야학선생이 먼저 연설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김정숙어머님께서 연단에 나서시였습니다.

순간 모였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큰 모임의 연단에 나어린 소녀가 나섰기때문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을 알아본 마을사람들은 《회령집 작은 딸이요!》라고 하면서 홰불을 더욱 높이 쳐들었습니다.

연단에 나서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거치른 남의 나라 땅에서 아버님을 잃고 고생하신 생각에 저절로 목이 꽉 메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정숙어머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여러분!

…

어찌하여 우리의 늙은 부모들은 조국을 그리다가 원한품은채 이 거치른 이국땅에서 쓰러져가야 하며 어찌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피눈물나는 고생속에서 시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무엇때문이며 누구의탓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강도 일제와 악귀같은 지주놈들때문입니다.

일제와 악질지주는 우리의 철천의 원쑤입니다.

원쑤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편안하게 살수없습니다.

모두다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하나와 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연설이 끝나기 바쁘게 군중들은 주먹을 높이 쳐들며 강도 일제와 악질지주놈들을 타도하자고 웨쳤습니다.

이어 군중들은 홰불을 휘두르고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학교운동장을 떠나 거리로 행진해나갔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선동연설은 이렇듯 커다란 힘이 되여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이름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제 24 과
마을농민들을 깨우쳐주시며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을녀인들과 함께 조가을을 하시다가 잠간 휴식을 하게 되시였습니다.

한 녀인이 탐스러운 조이삭을 어루만지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조이삭들도 다 지주집창고에 들어가겠지…》

그러자 다른 녀인들도 분한 생각을 하면 일하고싶지도 않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계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꼭 3,7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한 녀인이 요즘 떠도는 3,7제라는것은 어떻게 하는것인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밭에 묶어세운 조 10단을 가져다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것이 올해 그 집에서 지은 곡식이라고 한다면 요 3단이 리지주네 몫이구요, 나머지 7단은 우리 작인들 몫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자는 3,7젭니다라고 설명해주시였습니다.

그때에야 그 뜻을 안 그 녀인은 《그렇다면야 죽기내기로 해야지. 그렇게 좋은걸 왜 안하겠소!?》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녀인만은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으면 살길이 열리겠는데 지주놈이 가만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근심하는것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낮으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이겨야 해요. 이기자면 힘을 단합해야 해요. 놈들이 아무리 날친다 해도 우리 농민들이 한사람같이 뭉치기만 하면 무서울게 없구 그 힘을 당할자가 세상에 없답니다. 뭉치면 이기니 뭉쳐서 싸우자요!》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은 마을녀인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지주놈에게 3,7제를 들이댈 마음들을 다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을 따라 투쟁에 나섰던 한 녀인은 리지주놈이 찾아와 호통을 치는 바람에 겁을 먹고 집에서 앓는척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볼세라 밤이 캄캄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급히 걸어오고있는것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김정숙어머님이시였습니다.

그 녀인은 김정숙어머님께 혼자몸으로 어디에 갔다오는가고 하면서 무섭지 않은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녀인의 손을 꼭 잡으시고 적

들과 싸우려면 무서운 밤길도 혼자서 걸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래일 한 사람이라도 투쟁에 더 많이 동원시키기 위해 두개 마을을 돌고 오는 길이라고 대답해주시였습니다.

그 녀인은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습니다. 김정숙어머님과 자기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녀인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금순이어머니, 나는 나라를 찾는 일이라면 이런 밤길을 얼마든지 걷겠습니다.…

녀자들도 일어나 싸워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겠습니까. …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나서면 무서울것이 하나도 없고 힘든줄도 모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 녀인에게 래일 있게 될 농민들의 모임에 꼭 나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마을농민들이 신심을 가지고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25 과
3,7제투쟁의 앞장에

김정숙어머님께서 14살 되시던 해 가을에 이르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하신 추수투쟁이 여러 지역에서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푸옌마을에서도 3,7제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위군중은 대렬을 짓고 먼저 악질지주놈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대렬의 맨 앞장에서 구호선창을 하시면서 군중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시였습니다.

《악질지주를 타도하자!》

《3,7제를 실시하자!》

수천명 군중들의 웨침소리는 지주놈의 집을 당장 삼켜버릴듯 하였습니다.

질겁한 지주놈은 대문을 굳게 닫아걸고 꼼짝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시위군중은 그놈의 집을 포위한채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밤새껏 혁명가요도 부르시고 불무지들에 짚단도 날라다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물도 끓여다주시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새날이 밝을무렵 갑자기 바다오거우쪽에서 말을 탄 경찰놈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쿠며 달려왔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겁에 질린 지주놈이 밤사이에 녀자옷을 입고 생쥐처럼 빠져나가 경찰에 알리였던것입니다.

경찰놈들은 거만하게 군중들을 내려다보면서 당장 흩어지라고 호통쳤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시위대렬의 앞뒤로 오가시면서 군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구호선창조가 《경찰은 물러가라!》, 《악질지주를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연방 웨치게 하시였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군중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경찰놈들을 맞받아나아갔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을 탄 경찰놈들은 그만 황급히 도망치고말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꼴을 보며 통쾌히 웃는 군중들을 향하여 《보라요. 우리의 뭉친 힘은 그 어떤 총칼로도 막을수 없어요.》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군중들은 또다시 구호를 웨치며 행진하였습니다.

드디여 그들은 현장놈에게서 3,7제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야말았습니다.

군중들은 즉시 지주놈들의 창고를 열어제끼고 빼앗긴 쌀을 도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지주놈만은 죽어도 3,7제를 못하겠다고

버티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리지주놈의 집 마루우에 올라서시여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살아온 그놈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은 군중의 분노를 더 크게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삽과 괭이, 몽둥이를 들고 성난 사자와 같이 지주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급해맞은 지주놈은 땅바닥에 엎디여 설설 기면서 빼앗은 쌀을 다 주겠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3,7제를 위한 농민들의 시위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굳게 뭉친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더욱 똑똑히 깨달으시였습니다.

제 26 과
차디찬 강물을 헤치시고

김정숙어머님께서 15살 되시던 해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혁명조직앞에는 멀리 떨어져있는 마을의 혁명조직에 급한 련락을 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순간을 다투는 이 긴급한 과업

을 스스로 맡아나서시였습니다.

련락지점까지 빨리 가닿자면 강을 건너가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얼음도 며칠전부터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동생과 함께 강을 건너가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강가에 이르니 칼날같은 강바람이 뽀얀 눈가루를 날리며 휘몰아쳐왔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생의 손을 잡으시고 바람을 맞받아나가시였습니다.

얼음을 타고 얼마쯤 걸으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얼음이 꺼진 강복판에서는 차디찬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미 결심하신듯 신발과 버선을 벗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생의 손을 쥐시고 성큼 물에 들어서시였습니다.

찬기운이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물은 허벅다리를 넘어 가슴우에까지 쳤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생과 서로 손을 꼭 잡으시고 한발자국씩 강바닥을 더듬어나가시였습니다.

떠내려오는 얼음장까지 밀어제껴가며 강을 건느자니 온몸이 굳어지면서 자기 몸 같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럴수록 마음을 더 굳게 다잡

으시며 얼음이 꺼진 강물을 건느신 다음 다시 얼음판우에 올라서걸으시였습니다.

그런데 옷이 얼음장처럼 꽛꽛하게 얼어들어 걸음을 빨리 걸을수 없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마지막힘을 다 내여 한치한치 강기슭으로 향하시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시였을 때에는 퍼그나 깊은 밤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안타까이 련락을 기다리고있던 혁명조직성원들은 김정숙어머님 오누이의 모습을 보고 더 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얼굴과 손은 얼다못해 시퍼렇게 변했고 젖은 옷은 너무 꽛꽛해져 움직일 때마다 뿌드득 소리가 났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날에 보장하신 긴급련락은 그후 10여만의 대중투쟁이 승리를 거두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임무를 제때에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한몸도 아낌없이 바치시였습니다.

제 27 과
한놈의 밀정도 기여들지 못하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선봉대원들이 마을을 감시하는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원쑤놈들은 그때 혁명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마을에 밀정놈들을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느날 푸옌소년선봉대회의를 여시였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조직에서는 우리 소년선봉대원들에게 밀정놈들을 제때에 잡아낼데 대한 과업을 맡겨주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두다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한놈의 밀정도 기여들지 못하게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선봉대원들과 함께 마을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감시초소의 자리를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감시근무에 나갈 차례도 짜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임무를 받고 감시초소에 나가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뒤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들인 혁명군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고 이 시각에도 마음놓고 일하며 잠들고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혁명임무를 망각하고 한눈을 팔거나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군중을 튼튼히 보위해야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감시임무를 끝까지 정확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년선봉대원들은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감시근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그해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소년선봉대원인 권동무는 친척집에 갔다가 낯모를 사람이 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척집식구들의 말만 믿고 이 사실을 혁명조직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조직을 통하여 그 낯선 손님을 알아보시였습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그 낯선 손님은 바다오거우경찰서에서 들여보낸 밀정놈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곧 소년선봉대원들의 모임을 여시고 권동무를 엄하게 비판하시였습니다.

《적들은 교활합니다.… 때문에 소년선봉대와 아동단에서는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거나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도 조직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집행하지 않다나니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번 하였습니까.

조직에서 제때에 손을 써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적들은 벌써 우리 마을에 달려들어 부모형제들을 학살하고 혁명조직을 파괴하여버렸을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은 소년선봉대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쑤놈들의 교활한 책동앞에 순간이나마 해이되였던 자신들을 뉘우치고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엿장사, 땜쟁이 등으로 가장하고 마을에 기여드는 밀정놈들을 모조리 잡아내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소년선봉대원들이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도록 하여 한놈의 밀정도 마을에 기여들지 못하게 하시였습니다.

제 28 과
한 녀동무를 구원해주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주놈의 빚값에 팔려갈번 한 녀동무를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푸옌마을에는 부모를 다 잃고 언니네 집에서 살고있는 한 녀동무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혁명조직에서는 그를 야학에도 나오게 하면

서 극진히 보살펴주었습니다.

지주놈은 이것이 몹시 배아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있는 한 어떻게 하나 그의 부모들이 진 빚을 몽땅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주놈은 돈 300원을 받고 그를 다른 곳에 팔아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곧 그를 구원할데 대한 문제를 혁명조직에 제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녀동무를 직접 만나시여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에 팔려가서는 안된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야학에서 교양을 받아오던 동무가 만일 놈들의 만행에 못이겨 그 더러운 곳에 끌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무자신이 일생을 망칠뿐아니라 군중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것을 알아야 하겠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힘을 합쳐 그놈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중들에게 녀자들도 뭉쳐서 싸우면 능히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자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교양을 받은 그 녀동무는 혁명조직의 힘을 믿고 지주놈과 맞서싸웠습니다.

지주놈은 그가 순순히 응하지 않게 되자 불한당놈들을 부추겨 끌어갈 꿍꿍이를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였습니다.

세놈의 불한당들이 몸에 시퍼런 칼을 품고 그의 집으로 기여들었습니다.

불한당놈들과 맞서게 된 그 녀동무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놈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세놈을 이겨낼수 없었습니다.

불한당놈들은 그를 끌고 뒤마당쪽으로 빠지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놈들, 꼼짝말라!》라는 벼락같은 웨침소리가 울리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소년선봉대원들과 함께 달려오신것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지휘밑에 10여명의 소년선봉대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불한당놈들은 칼 한번 써보지 못하고 꽁꽁 묶이웠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는 푸옌동 전체 군중이 다 모인 가운데 불한당놈들을 심판하는 모임이 열리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여온 사람들앞에서 놈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동무처럼 녀자들도 모두 일어나 힘을 합쳐 싸우면 지주, 자본가놈들을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불한당놈들을 벌벌 떨게 하는 김정숙어머님의 투쟁모습은 녀성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빚값에 팔려갈번 하였던 그 녀동무는 그후 유격대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제 29 과
유격대원호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우리의 혁명군대인 반일인민유격대를 무으시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접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5월 어느날 소년선봉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이 함께 참가하는 모임을 여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임에서 유격대아저씨들에게로 원호물자를 준비해가지고 가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원호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모두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동무들은 쌀을 모아 떡을 해가지고 가자고 하였으며 또 다른 동무들은 수건이나 담배주머니를 만들어가자고도 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두 참 좋은 생각들을 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좀더 의의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노래나 춤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유격대아저씨들에게 보여드린다면 더 큰 기쁨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모임참가자들속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금 유격대아저씨들이 일제놈들을 쳐부실 무기를 만들고있는데 망치와 집게 같은 도구가 모자라고 쇠붙이도 얼마 없어 애를 먹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것을 모아가지고 가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모든 동무들이 찬성해나섰습니다.

어떤 동무는 자기 집에 할아버지가 쓰던 집게와 망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동무는 큰 함마와 깨진 가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마끔 내놓겠다는 도구와 쇠붙이만 모아도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조직의 믿음에 의하여 유격대원호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며칠밤을 꼬박 밝히시면서 원호사업준비를 보살펴주시였습니다.

드디여 유격대아저씨들을 찾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떠나기에 앞서 동무들의 옷차림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습니다. 붉은넥타이도 곱게 매게 하시고 바지와 저고리도 산뜻하게 입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미리 봐두시였던 산나물도 뜯어가자고 하시였습니다.

점심때가 거의 다가올 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대렬을 이끄시고 유격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그립던 동생, 조카들을 얼싸안고 집소식, 농사소식을 물으면서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성껏 마련하여오신 담배주머니, 손수건 등을 그들에게 안겨주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그것을 받고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며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어 유격대원들에게 준비하여오신 연예공연을 보여주시였습니다.

합창 《우리는 아동단》으로부터 시작된 공연은 중창과 독창, 춤 등 어느 종목이나 할것없이 유격대원들을 참 기쁘게 하여주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오락회를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 아동단원들은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찌나 흥겨웠던지 점심밥을 짓던 식당어머니까지 마당에 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온 유격대병실 앞마당이 명절날처럼 흥성거렸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 유격대아저씨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원쑤놈들을 쳐부셔달라고 부탁하시고 마을로 돌아오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진행하신 원호사업은 유격대아저씨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제 30 과
유격대원들을 위하시는 마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햇감자나 풋강냉이가 몇이삭 생기여도 언제나 유격대원들부터 먼저 생각하시였습니다.

어느날 이웃마을에 가시였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 녀동무로부터 풋강냉이를 대접받으시였습니다.

그 녀동무는 오래간만에 오신 김정숙어머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싶어 먹을만 한 풋강냉이를 골라땄던것입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벌써 풋강냉이맛을 보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소랭이에 담아가지고 개울가

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마른 나무가지를 주어 불을 피우시고 풋강냉이를 삶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구수한 풋강냉이 삶는 냄새가 개울가에 풍기였습니다.

강냉이가 다 삶아지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것을 꺼내고 거기에 물을 가득 넣고 끓이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녀동무와 그곳에 와있던 한 소녀를 부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서 풋강냉이를 맛보시라고 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풋강냉이를 고지에 있는 유격대원들에게 가져다주자요.》

그리시면서 유격대원들이 아직 풋강냉이맛을 보지 못했을것이라고 하시며 어서 식기 전에 고지에 올려가자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뜻밖의 말씀에 녀동무도 소녀도 그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때식을 굶고 먼 길을 걸어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 풋강냉이를 한이삭이라도 드셨으면 하고 머뭇거리였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고만 있어요. 자 어서 이걸 들어요.》라고 하시면서 녀동무의 손에 풋강냉이그릇을 들려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뜨거운 물이 가득찬 주전자를 손에 드시고 앞장서 걸으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유격대원들이 있는 첫 보초소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밑에서 귀청을 째는듯 한 총소리가 울리였습니다. 《토벌대》놈들이 쳐들어온것이였습니다.

보초병은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바쁜 순간에도 소랭이와 주전자를 가까운 바위돌밑에 감추어놓으시였습니다.

적들은 벌써 고지밑에까지 바싹 기여들고있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금도 몸을 피하지 않으시고 적들과 싸우는 유격대원들과 함께 계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이 적들을 완전히 물리쳤을 때에는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난 뒤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그제서야 배고픔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이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고이 간수해두시였던 풋강냉이를 유격대원들앞에 내놓으시였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풋강냉이를 본 대원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풋강냉이를 들면서 김정숙어머님께 함께 드시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벌써 먹고 왔어요.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드세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이삭도 남기지 않고 다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습니다.

결국 자신께서는 때식을 번지시였지만 유격대원들을 위하여 강냉이 한이삭도 들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기뻐하는 대원들의 모습에서 강냉이를 잡수신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싸우는 유격대원들을 위하는 길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였습니다.

제 31 과
굳게 다지신 맹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숙이 15살 되던 해에는 온 간도땅을 피바다에 잠근 침략자들이 부암동에 달려들어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의 어머니와 올케를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15살 되시던 해 7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날한시에 어머님과 형님

을 잃으시는 큰 불행을 당하시였습니다. 일제《토벌대》놈들이 갑자기 푸옌마을에 달려들었던것입니다.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카애를 업고 마을 뒤산에서 아동단모임을 지도하고계시였습니다.

오라버님은 조직의 일로 집을 나가고 집에는 앓고계시는 어머님과 형님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개짖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기관총소리가 울리였습니다.

내려다보니 순식간에 차마 눈을 뜨고는 볼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있었습니다. 놈들은 집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마구 총으로 쏘고 총창으로 찔러죽이였습니다.

온 마을이 불바다속에 잠기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당장 산에서 뛰여내려가고싶으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동단원들은 누가 지키랴싶어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대원들이 《토벌대》놈들을 다 물리쳤을 때에야 아동단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시였습니다.

마을에는 피비린내가 풍기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찼습니다.

집터에 이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시였습니다.

집은 다 불타고 재가루만 날리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머님과 형님을 애타게 부르시면서 집주변을 헤매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울바자밑에서 온몸이 불에 데여 쓰러진 어머님을 발견하시였습니다. 형님은 불에 타서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께서는 힘없는 손으로 따님의 손을 더듬어잡으시였습니다.

《내 눈으로… 저 악귀같은 왜놈들이 망하는 꼴을 꼭 보자고 했는데… 원쑤를 갚아다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어머님을 붙안고 몸부림치시였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피눈물을 삼키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시였습니다.

《이 원한을 잊지 말자.

원쑤를 갚아야 한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두주먹을 불끈 쥐시고 억세게 일어서시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한 일제놈들이 망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굳세여지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모형제들을 빼앗아간 일제원쑤놈들을 기어이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맹세다지시며 그해 가을 동생과 함께 유격구로 들어가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4학년용)
제 3 판

집 필 량인옥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신호철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리은경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11월 23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8월 29일

교－12-보-823 값 5 원